

지난해 농식품 수출 65억달러 ... 목표치 79% 그쳐

국내외 경기 불황·대일 수출 0.8% 감소 영향

신시장 개척 국가별 맞춤형 수출 마케팅 집중

국내외의 지속된 경제 악재 등으로 농식품 수출액이 목표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국이었던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게 주원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64억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61억1천만 달러)보다는 5.9% 증가했지만, 정부가 세웠던 수출 목표인 81억 달러의 79% 수준에 그쳤다. 이로써 수년째 농식품 수출액은 사실상 '목표 따로 실적 따로' 양상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연초부터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했다.

다행히 3월 이후 수출액이 반등했지만, 브렉

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과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조치, 한진해운 발 물류난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 여건이 안 좋아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추경편성(104억 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100일 프로젝트' 등으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현지 판촉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15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한국 전체 수출액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성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1억59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엔고 등의 영향으로 이 나라 경제 여건이 개선됐으나 그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한한령에도 내륙 매장 진출을 비롯해 온라인몰 입점 등 수출 판로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10억9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으로의 수출액은 4.4% 늘어난 17억2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7억1700만 달러)으로의 수출은 14.2% 증가했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3개국(11억800만 달러)으로의 수출은 7.8% 늘었다.

농식품 분야로는 신선 농산물 수출이 배·파프리카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보다 7.5% 늘어난 10억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였던 인삼류 수출은 13.9% 급감했다. 주요시장인 중화권의 경기둔화로 뿌리삼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내 유통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수출은 5.6% 늘어난 53억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간편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과 농가소득 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기계, 농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농업 로드맵'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과일·제수용품 저렴하게 팔아요”

농협 광주지역본부

설매이 직거래 장터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마련된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2일 “오는 25일까지 광주·비야·서광주·남광주·송정·평동 농협 하나로마트와 광주지역본부 1층 로비에서 금반 설매이 특별장터를 통해 풍성한 과일 및 제수용품 등을 소비자에게 한층 낮은 가격으로 공급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 광주본부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재)과 함께 지난 19(목)에 광주지방검찰청 앞 공터에서 ‘정유년 설매이 우수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해 광주전남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고 30%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로 판매했다. 또 20에는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과 함께 직거래장터를 개장했고, 이 장터에서는 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2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사전 주문하는 등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에 도움을 줬다.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개장한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인절미·불고기 시식회 행사 및 떡메치기행사도 함께 곁들여졌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유년 설에도 바빠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임 CEO 초청 사업계획·현안 청취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자문회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20일 서울 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전임 CEO 초청 경영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농정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전임 사장들에게 올해 사업계획 및 현안과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 계획으로 ▲농업융수와 시설물 관리의 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생산기반은 기후변화, 지진 등 재해예방과 내진보강에 주력 ▲농지은행은 신규 창업농 육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 ▲지역개발과 수산

해양분야 등은 성공모델 정립 등을 보고했다.

전임사장들과 정승 사장은 기존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기후변화, 세계화, 쌀 과잉 생산, 등의 변화에 대응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승 사장은 “올해를 공사가 농정의 중심에 서는 원년으로 삼고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는 김영진, 조흥래, 배희준, 안종운, 임수진, 홍문표, 박재순 전 사장이 참석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T, 농식품정책자금 지원 대상 사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정책자금’ 지원 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T를 통해 농식품 수출사업자와 식품외식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월 31일(화)까지 모집하고 있다.

해당사업의 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 사업장 소재지 aT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농식품 수출 지원자금이 3757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이 679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aT 여인홍 사장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 보후무역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농식품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트럼프 정부 출범 변동성 장세

국내 기업 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IT·증권업 저가 매수 긍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확산되며 글로벌증시의 더불어 국내증시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였지만 트럼프플랜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매물이 증가하였다.

주 초반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700억달러를 투입해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발표와 박대통령탄핵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 자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소식에 그 동안 상승추세를 보이던 반도체업종이 조정양상을 보였다. 지난주 수급악화를 우려했던 코스닥시장은 시장을 반등 시킬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되며 620선 초반까지 하락했다.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5억원과 1206억원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들 수급에 변화가 없다면 코스닥시장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이슈는 그 동안 전세제가 긴장감속에 기다렸던 트럼프취임연설과 함께 '취임 100일 청사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지금부터 ‘미국이 우선’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역과 세금, 이민 등 모든 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어서 다른 나라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임 후 새정부는 의회의 의결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금융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TPP탈퇴, 환율조작국지정, 친환경규제완, 금융규제 철폐, 국정세부과, 이민자규제 등 이들 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에 따라 향후 트럼프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 발표될 때 시장 변동성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24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로 시작된 25일 현대차 POSCO, 26일 SK이노비스 NAVER 로 본격화되는 국내기업의 4분기 실적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시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IT업종의 실적호전을 이끌고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으로 현대차등 수출주의 실적개선이 이어진다면 경험적으로 4분기 실적발표 때마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최근 몇 년의 흐름에서 벗어나 코스피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의 코스피 4분기 영업이익추정치는 35조원선이며 2017년 1분기와 2분기도 40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발표가 최근 매도로 전환된 외국인 순매수기조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실적발표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코스피지수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절과 중국 춘절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국당국이 사드문제로 전세기 운항제한 및 저가방한 상품단속 등 연일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감소하고 예전과 같은 춘절소비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주는 트럼프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능성도 있지만 코스피지수는 현지수대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개선과 글로벌증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추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IT업종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증권업종의 저가 매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종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욕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찜질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찜질가마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찜질가마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찜질가마

맛의향연

13,000원

찜질가마 돼지갈비 (눈,비오는날 9,900원)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찜질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찜질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